목자 먹는(?) 양의 되새김질

(시편 23:1~2)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목자 먹는(?) 양의 되새김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목자 먹는(?) 양의 되새김질'
누가복음 15장 4~6절에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 집에 와서 그 벗과 함께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목동들의 잔치에 무슨 음식이 올라왔을까요? 바로 양고기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달리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유를 이런 식으로 과대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제목에서처럼 양이 목자를 먹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양은 목자를 잔뜩 먹고 나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염려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역사상 임종 때에 가장 많이 읽혔다고 여겨지는 글로써 유명합니다.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표현들 속에서 평화스러움을 느끼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미래를 보장해주는 말씀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산에서 금과 은을 캐듯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내용을 캐내기 위해서 조금 분석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구절에 대해서입니다. 이 장면은 푸른 풀밭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는 모습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목동생활의 풍부한 경험과 뚜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를 노래하는 가운데 어떤 장면을 떠올렸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는 양떼를 몰고 사막을 가로질러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찾아내서 양들을 먹이는 목동 활동의 논리적 과정을 염두에 두고 쓰여 진 시가 아닙니다. 푸른 풀밭에 양들이 누워있는 한 장면을 떠올리고 쓴 시입니다. 아시는 대로 양은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다윗은 양이 풀밭을

거닐며 풀을 뜯는 모습을 떠올린 것이 아니며 목자를 신뢰하여 거친 사막을 횡단하는 모습을 떠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배를 잔뜩 불린 양이 풀밭에 누워서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떠올린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추동물인 양은 특성상 위(胃)가 네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가능한 많은 먹이를 저장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안전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천천히 되새김질을 하면서 차례대로 다음 위로 보내며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만 담아두었던 것을 꺼내어 씹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나온 양의 생태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모습을 그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부분은 '쉴 만한 물 가'라는 부분입니다. 육식 동물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오히려 감옥이고 지옥입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있는 동물들은 먹잇감이 있는 사냥터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좋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여호와의 양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양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목자가 움직이지 않는 한 굶어죽더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22편에서 하나님과 갓난아기의 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갓난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갓난아기가 오늘은 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사냥터에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와 표범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사자나 표범은 목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하는 방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여호와를 사냥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에 나의 마음이 사냥터에서 먹잇감을 찾는 사자나 표범이라면 입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할지라도 전혀 말씀과는 관계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양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셋째로 눈에 띄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일까요?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돈 잘 벌리는 곳으로 인도해주시고, 공부를 하면 일류대학에 들어가게 인도해주시고, 몸을 건강하고 장수하게만 해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바람을 이 구절에 얹어놓고 기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런 내용의 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환경적 조건을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서 순탄하게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1절과 2절만 봐도 많은 문제가 의문점으로 제시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꼭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1절 말씀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에서 나오는 ‘부족함’이 핵심적 단어입니다. 부족함과 그 반대인 만족함은 우리 마음이 느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부족함과 만족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아주 건강하면 모든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연약하면 산해진미를 주어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포착하여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족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해 분석해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기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을 때에 당연히 마음에는 부족함이 생깁니다. 만족은 마음이 채워져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귀로 인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원죄의 체질이 발동합니다. 마음이 부족함을 느끼는 원인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지갑이 홀쭉하다면 그것을 핑계 삼습니다. 지갑이 비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자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갑이 두툼해지면 만족을 느껴야 한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갑이 더 두툼해져야 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인데 그 원인을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적이 안 좋아서 부족함을 느낀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것들로 핑계를 삼고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망나니 같은 자녀가 최고의 모범생으로 변할지라도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의 원인을 망나니 자녀 때문으로 핑계를 대며 이유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보면서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생겨난 부족함을 아내를 보면서 음식 맛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핑계를 그렇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1절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삶의 환경적 조건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셔서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는 다윗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순간의 한 장면을 포착해서 노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24시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를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목자가 풀밭을 비전으로 삼아 갈 수는 있지만 양들이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를 비전으로 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흔히 비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양이면서 스스로 비전을 가지고, 비전대로 가기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나를 끌고 가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립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양의 비전은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양은 24시간 목자를 눈으로

보고 귀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갈 뿐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장면을 가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라는 발상은 우리의 바람을 이 시에 주입했을 뿐입니다. 이 시는 양이 24시간 목자만 바라보고 따르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여,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때에만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결과 2절에서 노래한 대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쉴 만한 물가는 원어로 보면 잔잔한 물가입니다.
24시간 목자를 바라보는 양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바라기가 되면 자연히 내 마음은 만족해집니다. 이렇게 만족을 누릴 때 육체가 있는 땅의 상황은 푸른 풀밭이 됩니다. 풀밭에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는 양은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풀을 뜯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목자로 배부른 양입니다. 풀밭에서 풀을 뜯지 않고 엎드려 목자를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무엇인가 새롭게 먹음으로서 배부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이미 목자를 먹어서 배부른 상태의 기쁨과 만족을 되새김질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풀을 뜯어 먹으며 배불러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풀을 뜯듯 배우자를 바라보며 배부름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나 직장 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인을 앞에 놓고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되새김질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과 기쁨을 되새김질 하는 것일 뿐, 양이 풀을 뜯어 먹어서 배부르듯이 애인을 마음에 담아서 만족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가는 그렇게 함에 있어서 아무런 염려거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행여나 배는 부르더라도 목은 마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 염려거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곧 망할 것만 같고 속이 탑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항상 시온에 있는 성막을 생각했습니다. 성막 안의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상번제에서의 어린양의 죽음을 떠올리며 세상을 담은 자신의 마음이 죽는 것으로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마음이 따라가길 소원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앙망하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진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안은 돈이 없어서 속이 탔는데 하나님으로 배가 부르자, 그 괴로웠던 사업장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됩니다. 염려할 것도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사업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꺼내서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만족이 사업장에서 지혜가 되고 활동이 되고 사장님의 아이디어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

님으로 만족한 자에게는 모든 상황은 푸른 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배우자가 원망스럽고 말썽을 부리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강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께 푸른 풀밭을 제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양이 아니라 표범이고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맹수 같은 이빨과 발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면 스스로 먹잇감을 찾아다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잇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사냥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목자 먹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삶에서 되새김질 할 준비가 되지 않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여전히 표범이나 사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삶은 부족한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것은 풀을 뜯는 양이 아닙니다. 이미 목자를 바라보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므로 배불러서 풀밭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양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양은 24시간 목자를 바라보듯이 성도는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나 퓨마에서 양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낼 수 없는 자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퓨마가 되고 표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문제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배우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직장이 문제이고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표범인 것입니다. 양은 상황을 보지 못합니다. 풀이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도 목자만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TV보고 책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통해서 온갖 소리에 귀를 열어둡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부족함을 느껴서 나도 벌어야겠다며 표범이 되어서 돈이라는 사냥감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에 입학 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냐의 사냥감을 찾습니다. 요즘 60대들이 모여서 매일 건강 이야기만 합니다. 어디에 가면 건강이라는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는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입니다. 그러니 목자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로 배부른 양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양들에게 이 세상은 되새김질을 할 만한 푸른 풀밭이고 잔잔한 물가입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가득 찬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나의 행동이 되고 말이 되고 계획이 되고 소원이 될 때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양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목자 먹는 양의 되새

김질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표현 방법입니다. 오늘도 마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르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여호와 목자로 배부르고, 세상에서의 모든 순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되새김질 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마귀에게 속은 체질이 이끄는 대로 세상에서의 이유와 핑계를 찾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범과 늑대가 되어서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는 삶을 중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배불러서 주어진 상황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여기며 되새김질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